

임상간호사의 성건강 간호 장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정희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Factors Influencing Barriers to addressing Patients' Sexual Health among Clinical Nurse

Kim, Jung-H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barriers faced by Korean nurses in addressing the patients' sexual health. **Method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nurses working at hospitals in Seoul and Jeonju.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between November 2008 and December 2008. The subjects were assured of anonymity and confidentiality. **Results:** The barriers to addressing the patients' sexual health were moderate in the subjects. The nurses had moderate sexual knowledge and communication skills. In 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areas of work, communication skills, participation in sexual health training, and experience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accounted for 18.3% of the variance of the barrier for addressing the patients' sexual health. **Conclusion:** These findings emphasize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 patient-centered sexual health-related curriculum for nurses, which has been briefly discussed in Korea. An educational program that improves the nurses' communication skills will be effective in reducing the barriers to addressing the patients' sexual health and will help the nurses become sexual health specialists

Key Words: Nurse, Knowledge, Communication, Sexual healt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성건강 문제는 생식기계질환뿐 아니라 암, 당뇨병, 뇌졸중, 심장질환에서의 치료과정과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건강문제이다(Kim, 2008; Korpelanein, Neiminen, & Myllylä, 1999; Lion, 1982).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및 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며 때때로 실제적인 문

제가 없으면서 성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Cooper & Guillebaud, 1999). 실제로 암환자의 37%는 치료와 관련된 성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ox, Jenkins, Catt, Langridge, & Fallowfield, 2006).

그러나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이 건강전문가와 성에 대한 의논을 한 적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Kim, 2008),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건강전문가는 환자의 성이 중요하다고 여기나 건강전문가의 6%만이 환자의 성문제에 대해 자주 상담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Haboubi & Lincoln, 2003).

주요어: 간호사, 성지식, 의사소통, 성건강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Jung-Hee, Department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333 Samnye-ro, Samnye-eup, Wanju 565-710, Korea.
Tel: 82-63-290-1760, Fax: 82-63-290-1548, E-mail: jhee90@hanmail.net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31-E00388).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8-331-E00388).

투고일 2009년 8월 7일 / 수정일 2009년 12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월 29일

Jeon (2003)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성기능 장애를 겪는 부부들도 성문제가 심각하나 이를 개인의 고민으로 돌리며 해결하지 못하고 때때로 존재가치에 대한 위기를 느끼기도 한다. 성생활을 지속할수록 자신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유지하며 더 건강하게 살며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음을 고려할 때(Block & Bakos, 1999) 환자의 성문제를 환자간호에 통합하지 못한다면 이는 환자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중요한 건강문제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간호사의 성건강 간호에 대한 장애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는 못했으나,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이나 근무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근무병동에 따라 재활병동의 건강전문인은 환자에게 성문제에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자의 성을 다루는 것에 대한 장애와 불편감 정도는 다른 병동과 차이가 없었다(Haboubi & Lincoln, 2003). 그러나 산부인과 근무간호사가 다른 병동 간호사에 비해 성건강 장애감이 낮았으며, 특히 환자의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간호사의 일이라는 신념과 성건강 간호수행에 대한 편안감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Magnan & Reynold, 2006). 또한 Ng와 McCarthy (2007)는 환자의 성 사정과 상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과 연령을 들었으며, 환자가 이성인 경우나 나이가 어릴수록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보고된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성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므로(Kim, Bae, Moon, & Kang, 2005) 성건강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특성이 성건강 간호에 대한 장애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성건강 간호에서 환자 교육과 상담은 중요한 요소이다(Reynold & Magnan, 2005). 이를 위해서는 성관련 지식 정도와 의사소통이 중요하나, 건강전문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성지식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환자와의 의사소통기술의 부족으로 환자와 성문제에 대한 의논을 피하기도 한다(Horden, 2000).

성건강 간호 수행을 위한 환자교육에서 간호사의 성지식은 환자의 성건강 간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나(Lion, 1982), 건강관리 전문가의 대부분은 환자의 성문제를 다루는데 정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환자와의 성건강 간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boubi & Lincoln, 2003). 실제로 건강전문인이 환자와 성문제에 대해 의논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지식과 경험의 부족'이

보고되고 있다(Stead, Brown, Fallowfield, & Selby, 2003). 의대생이 환자의 성문제에 관한 워크숍 참여 이후 환자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낀 것을 고려할 때(Ng & McCarthy, 2007) 건강전문가의 성지식은 환자의 성건강 간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 상담자로서 간호사는 주의 깊게 경청하고 감정표현을 복돋아 주고 수용해주고 대상자의 성문제, 기대, 불안 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Herson, Hart, Gordon, & Rintala, 1999; Lion, 1982).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사는 일이 많아 기본적인 환자간호를 수행하기에도 시간이 없고 직원, 공간, 장비의 부족에 대해 어려움을 느껴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West, Barron, & Reeves, 2005). 환자와 의사소통의 여유가 없고, 적절한 의사소통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성건강 간호에 대한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된다(Reynold & Magnan, 2005). Miller와 Whitaker (2001)는 부모와 청소년의 콘돔사용에 대한 논의를 예견하는 요인으로 부모와 청소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들었으며 이는 성건강 간호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의미한다.

국내에서의 성건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Koo & Kim, 2007; Kwon et al., 2006)과 대학생(Kang, Song, & Lim, 2005; Shin, Park, & Shin, 2009), 노인(Han, Kim, & Ji, 2003)을 대상으로 성 태도와 지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성건강 간호에 대한 연구로, 그 결과를 통해 간호사의 성건강 간호에 장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성건강 간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수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임상실무에서의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자의 성건강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의 성건강 간호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업무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임상간호사의 성건강 간호 장애감, 성지식, 의사소통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 임상간호사의 성건강 간호 장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차 분석이며 본 연구의 자료는 임상간호사의 성건강 간호에 대한 장애감을 조사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로부터 도출되었다.

2. 연구대상

서울과 전주시에 위치한 2, 3차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총 31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업무관련 특성, 성건강 간호 장애감 12 문항, 성지식 19문항, 의사소통행위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성건강 간호 장애감

성건강 간호에 대한 장애감은 환자의 성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어려움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Reynolds & Magnan, 2005) 이를 측정하기 위해 Reynolds와 Magnan (2005)이 개발한 Sexuality Attitudes and Belief Survey (SABS)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번역, 역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번역된 문항은 간호학 교수 2인과 수간호사 1인의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를 검정받았다. SABS는 간호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성건강 간호에 대한 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나는 성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개인적인 것이라 환자와 의논하기가 어렵다', '입원한 환자는 성에 관심을 갖기에는 질병이 심각하다'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Reynolds & Magnan, 2005). 12개 항목의 Likert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에 대해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6점은 '매우 그렇다'로 1~6점 척도이다. 가능한 점수는 12~7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 실무에서 성건강 간호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72$ 였으며(Reynolds & Magnan, 200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2$ 였다.

2) 성지식

성지식은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이해로(Adams et al., 1996), Adams 등(1996)이 개발하고 Kim (2008)이 번역한 Sexual Information Questionnaire를 원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부부가 동시에 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훌륭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의 문항을 포함하는 성적 만족 관련 5개, '홍분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거북해할 때 성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를 포함하는 성과 관련된 시간과 노력 4문항, '연령이 많을수록 때때로 남성의 절정감과 사정은 약해지고, 사정이 안 될 수도 있다'를 포함하는 노화와 성 4문항, '스트레스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발기 유지능력을 잃게 할 수 있다'를 포함하는 스트레스와 압박 4문항, '대부분 부족한 남성 호르몬 탓에 발기부전이 나타난다'를 포함하는 기본적 지식 2문항으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질문에 대해 답이 맞는 경우에는 1점, 틀린 경우와 '잘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는 0점을 주어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올바른 성지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78$ 이었으며(Adams et al., 1996),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4$ 였다.

3) 의사소통행위

의사소통은 간호사로 하여금 인간 대 인간관계를 성립 유지함으로써 간호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과정으로(Travelbee, 1969), 의사소통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Yoon (2004)이 개발한 의사소통 수행정도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간호사가 알아봐주기, 동참하기, 공유하기, 적극적 경청하기, 동행하기, 칭찬하기, 위로하기, 희망을 불어넣기, 용서를 구하기, 수용하기의 의사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정도를 평가하였다. 의사소통 수행정도는 각 5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사소통수행정도에 대해 1점은 '적음', 5점은 '아주 많음'으로 1~5점 척도로 각각의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하였다. 가능한 점수는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와의 의미있는 의사소통행위가 많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95$ 이었으며(Yoon, 2004),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7$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서울과 전주시에서 각각 1개 3차 병원과 2차 병원을 선정하여 총 4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

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해당 의료기관의 기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 후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해당부서장의 안내로 병동, 외래, 특수파트, 행정파트 부서의 책임자에게 연구목적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실시한 후, 연구자와 훈련을 받은 연구보조원에 의해 자료수집이 실시되었다. 자료수집기간 동안 연구원이 방문했을 당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 및 설문조사방법, 소요시간 등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과정동안 연구대상자에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참여가 철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본수의 결정은 유의수준 α 는 .05, power는 .80, effect size는 medium으로 설정하여 산출된 표집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는 최소 95명이였다(Bio stat, 2000). 수집된 총 321부의 설문지중 내용이 불완전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총 310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업무관련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실수, 백분율을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업무관련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실수, 백분율을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 임상간호사의 성건강 간호 장애감, 성지식, 의사소통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 임상간호사의 성건강 간호 장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직급, 근무경력, 근무병원유형, 근무부서, 산부인과 근무경험, 성건강관련 연수 유무, 성지식, 의사소통행위를 독립변수로 하여 Step wis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회귀진단을 위해 잔차분석, 다공선성을 검토하여 모두 만족됨을 확인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과 전주에 소재한 2차, 3차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체 임상간호사에게 확대 적용, 해석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업무관련 특성

현재 기혼인 경우가 55.2%였으며, 연령은 최소 23세에서 53세로 평균 33.22세이며, 20대와 30대가 각각 40.6%, 3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이상은 20.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독교가 47.1%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4년제 졸업이 41.9%, 전문대 졸업이 38.1%,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가 20.0%였다(Table 1).

주임간호사 이상의 보직을 갖고 있는 경우가 30.3%였다. 임상경력을 Jang (2000)의 4단계 임상등급 기준에 따라 분류했을 때 입사 12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갖고 있는 초보자 단계의 간호사는 4.6%, 13~36개월의 상급초보 단계 간호사는 11.9%, 37개월에서 72개월의 유능한 단계 간호사는 22.9%, 입사 73개월 이상의 숙련단계에 있는 간호사는 60.6%로 조사되었다. 3차 병원급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74.2%였으며, 2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25.8%였다. 성관련 근무부서로서 16.8%가 산부인과 진료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6%의 간호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 건강 간호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으며, 11.3%가 이와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았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arriage status	Not married	139 (44.8)
	Married	171 (55.2)
Age (year)	23~29	126 (40.6)
	31~39	121 (39.0)
	≥40	63 (20.4)
Religion	Protestant	146 (47.1)
	Catholic	44 (14.2)
	Buddhism	19 (6.1)
	None	96 (31.0)
	Others	5 (1.6)
Educational level	Diploma	118 (38.1)
	Baccalaureate	130 (41.9)
	≥Master	62 (20.0)

Table 2. Job 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Class of position	Staff nurse	216 (69.7)
	≥ Charge nurse	94 (30.3)
Years of clinical careers	≤ 12	14 (4.6)
	13~36	37 (11.9)
	37~72	71 (22.9)
	≥ 73	188 (60.6)
Types of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230 (74.2)
	General hospital	80 (25.8)
Area of work	General unit	190 (61.3)
	Outpatient	34 (11.0)
	Special unit	76 (24.5)
	Administration & others	10 (3.2)
Experiences of obstetric & gynecology department	Yes	52 (16.8)
	No	258 (83.2)
Experiences of sexual health care	Yes	39 (12.6)
	No	271 (87.4)
Participation of sexual health training	Yes	35 (11.3)
	No	275 (88.7)

2. 성건강 간호 장애감, 성지식, 의사소통행위

성건강 간호 장애감 정도는 최소 22점, 최대 67점이며, 평균 44.30±7.1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성지식은 최소 2점, 최대 19점이며, 평균 11.47±4.33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환자와의 의사소통행위정도는 최소 2점, 최대 5점이며, 평균 3.40±0.49점이었다.

3. 임상간호사의 성건강 간호 장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간호사의 성건강 간호 장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step wise selection

method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중 명목변수는 더미변수 처리하였으며 각각 미혼인 경우, 학사 이하의 학력, 보직이 없는 간호사, 대학병원 근무자, 근무부서에 있어서는 외래근무자가 아닌 경우, 산부인과 진료분야의 근무경험이 없는 경우, 성건강 연수를 받지 않은 경우를 1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무부서($\beta=.226, p<.001$), 환자와의 의사소통행위($\beta=-.211, p<.001$), 성건강간호와 관련된 연수 참여경험($\beta=.182, p=.002$), 산부인과부서 근무경험($\beta=.167, p=.005$)이 성건강 간호 장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8.4%였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 성건강 간호 장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성건강 간호 장애감 정도는 평균 44.30점으로 보통 수준이다. 그러나 Magnan과 Reynolds (2006)에 의하면 미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느끼는 성건강 장애감은 평균 37점이며, 이와 비교할 때 한국 간호사는 미국 간호사에 비해 성건강 간호에 대한 장애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으로 한국에서 성문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지고 있으며(Kim et al., 2005) 간호사와 환자 모두 성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지식은 평균 11.47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동일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평균 6.66점과 비교할 때(Kim, 2008) 간호사의 성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뇌졸중 남성이 9.91점인 연구결과(Kim, 2008)와는 큰 차이가 없어, 건강전문가인 임상 간호사에게 상식적인 성지식 수준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이 갖

Table 3. The Predictors of Barriers to Addressing Patient's Sexual Health

(N=310)

Variables	R ²	Adj R ²	B	β	F or t	p
	.184	.171			14.022	< .001
Area of work [†]			-1.351	.226	3.893	< .001
Experience of type of patients care for obstetrics & gynecology [‡]			-1.036	.167	2.865	.005
Participation of sexual health training [§]			-1.381	.182	3.119	.002
Performance of communication skill			0.017	-.211	-3.602	< .001

[†] Dummy coded: 1= not work in outpatient department; [‡] Dummy coded: 1= no experience of type of patients care for Obstetric & Gynecology;

[§] Dummy coded: 1= no participation of sexual health training.

취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환자와의 의사소통행위 정도는 평균 3.40점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Yoon (2004)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의사소통 정도는 각각의 하부항목이 평균 3.21점에서 3.58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실제로, 임상간호사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다양한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으며(Yoon, 2004) 업무가 많고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West et al., 2005). 이러한 환경적 문제 이외에도 구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지침 부족으로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므로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교과과정 및 지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성건강 간호 장애감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근무부서, 산부인과 진료부서에서 근무한 경험, 성건강 간호와 관련된 연수에 참가, 환자와의 의사소통행위가 조사되었다. 즉, 외래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가 성건강 간호 장애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건강관리 전문인은 환자치료, 부작용과 같은 처치결과에 초점 두는 것에 더 편안함을 느끼므로(Horden, 2000) 특히 질환이 급하거나 중할수록 성건강 간호의 필요성을 적게 느낀다. 따라서 외래 치료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성건강 간호에 대한 장애감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문제는 다양한 질병 및 치료과정으로 인해 발생되며, 개인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Korpelanein et al., 1999; Kim, 2008) 증상이 경한 환자에게 국한된 건강문제가 아니므로 병동 간호사의 성건강 간호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야 하는 방안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문제가 흔하게 발생하는 비뇨기계, 신경계, 재활병동을 포함하는 계통별 영역에서 각각의 질병과 치료과정에 따른 성적 변화와 중재방안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환자의 성문제에 대한 장애감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수행정도가 낮을수록 성건강 간호에 대한 장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사소통의 여유가 없다는 것은 성건강 간호에 대한 중요한 장애 요인이다(Reynold & Magnan, 2005). Miller와 Whitaker (2001)는 부모와 청소년의 콘돔사용에 대한 논의를 예견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와 청소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들었으며 이는 의사소통과정에서 환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치료가 개인의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느낌과 불안을 이야기할 기회를 줌으로써 환자의 가치감, 자아개념, 신체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Shell, 2007). 따라서 효과적인 의

사소통술을 익혀 환자 간호에 활용해야 하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또한 부족하다. 최근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으나, 환자의 성문제에 초점은 둔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간호대학의 정규 교과목에서 간략하게 다루져 왔던 환자의 성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교육과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성건강 간호 연수경험이 없는 경우 성건강 간호 장애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간호사의 성건강 간호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성에 대한 workshop 후에 환자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Ng & McCarthy, 2007), 연수를 통한 태도와 지식 변화는 간호사의 성건강 간호에 대한 장애감을 줄이고 성건강 간호 전문가로 역할을 다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산부인과 진료부서 근무경험이 없는 간호사는 성건강 간호에 대한 장애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성건강 간호는 주로 피임이나 불임과 관련하여 여성 생식기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산부인과 근무 간호사가 성건강 간호수행에 대한 편안감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된 Magnan과 Reynold (2006)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성건강을 위한 중재에 환자의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Ng & McCarthy, 2007) 여성 환자가 대부분인 임상간호사의 경우 산부인과 진료 여성 환자에 대해 성건강 간호를 비교적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성과 성에 대해 의논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나 남성의 성반응에 대한 이해 부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여성이 주류인 간호사의 성건강 간호수행을 위한 재교육에서는 남성의 성문제를 다루는데 초점을 두어 관련 지식과 의사소통행위를 강화시키는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추후 연구는 암환자(Cox et al., 2006), 뇌졸중환자(Kim, 2008), 당뇨병환자(Jeon, 2003) 대상자의 성건강에 대한 요구가 높고 각기 나타는 성문제가 매우 다르므로 질환별 성건강 간호 요구를 확인하는 연구가 선행된다면 간호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로서 간호사는 성건강 간호에서 대상자가 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과 병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현재 및 잠재적 문제들을 제거하거나 줄여 나가야 한다(Lion, 1982). 생식중심의 성문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질환과 치료과정에서의 성문제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는 환자의 성건강 간호수행을 촉진할 수 있는 재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하여 볼 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환자의 성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문제로서 성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성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성관련 의사소통술, 즉 성상담 실제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성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식차원에서 단순 성지식이 아닌 주요 질환별과 치료과정에 따른 성적변화와 중재방안에 대한 전문적지식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간호사의 경우 남성의 성문제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비뇨기계 남성질환과 관련된 성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병동 간호사는 환자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며, 장기적으로 환자상담을 실시하는데 유리한 편으로 성건강 간호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나, 이들의 성건강 간호에 대한 장애감이 외래간호사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병동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한다면 입원당시부터 퇴원교육까지 연결되어 환자의 성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여 간호사가 성교육, 성상담자로서 그 영역을 강화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건강 간호 장애감에 영향을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전주시에 위치한 2, 3차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08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건강 간호 장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성지식은 보통 이상이며, 의사소통행위와 성건강간호 장애감은 보통 수준이었다. 외래 근무경험이 있는 경우, 환자와의 의사소통행위가 많을수록, 성건강 간호 관련 연수 경험, 산부인과 진료부서에서의 근무경험이 성건강 간호장애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상담 및 환자의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질병과 치료에 따른 성문제에 대한 재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임상 간호사의 환자의 성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감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성건강 간호 전문가로 그 역할을 다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성건강 간호수행을 위한 재교육에서는 일반 병동에서의 치료과정에 있는 환자와 남성 환자의 성문제를 다루는데 초점을 두어 관련 지식과 의사소통행위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간호대학의 정규 교과목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져 왔던 환자의 성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며, 환자의 성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불편감을 줄이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의사소통 지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dams, S. G., Dubbert, P. M., Chupurdia, K. M., Jones, A., Lofland, K. R., & Leermakers, E. (1996). Assessment of sexual beliefs and information in aging couples with sexual dysfunc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5*(3), 249-260.
- Block, J. D., & Bakos, S. C. (1999). *Sex over 50*. NJ: Reward Books.
- Bio stat Inc (2000). *Power And Precision Version 2*. Retrieved March 10, 2009, from <http://www.power-analysis.com>.
- Cooper, E., & Guillebaud, J. (1999). *Sexuality and disability: A guide for every day practice*. Oxon: Radcliffe Medical Press.
- Cox, A., Jenkins, V., Catt, S., Langridge, C., & Fallowfield, L. (2006). Information needs and experiences: An adult of UK cancer patients. *European Journal of Oncology Nursing, 10*(4), 263-272.
- Haboubi, N. H., & Lincoln, N. (2003). Views of health professionals on discussing sexual issues with patient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5*(6), 291-296.
- Han, H. J., Kim, N. C., & Ji, S. A. (2003). Knowledge, attitudes, and educational needs for sexuality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5*(1), 45-55.
- Herson, L., Hart, K. A., Gordon, M. J., & Rintala, D. H. (1999). Identifying and overcoming barriers to providing sexuality information in the clinical setting. *Rehabilitation Nursing, 24*(4), 148-151.
- Hordern, A. (2000). Intimacy and sexuality for the woman with breast cancer. *Cancer Nursing, 23*(3), 230-236.
- Jang, K. S. (2000).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linical career development model of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Jeon, H. S. (2003). *Sexual life of couples with diabetic impo-*

- 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ang, S. E., Song, E. J., & Lim, E. J. (2005). Difference i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gir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Health Nursing*, 17(5), 753-761.
- Kim, J. H. (2008). Relationship among sexual knowledge, frequency, satisfaction, marital intimacy, and levels of depression in stroke survival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3), 483-491, 77-85.
- Kim, J. H., Bae, J. H., Moon, H. S., & Kang, H. I. (2005). The relationships among body image, depression, and sexual function in postmenopausal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7(2), 239-248.
- Koo, H. Y., & Kim, S. S. (2007). Relationships among cybersex addiction,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and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7), 1202-1211.
- Korpelainen, J. T., Nieminen, P., & Myllylä, V. V. (1999). Sexual function among stroke patients and their spouses. *Stroke*, 20(4), 715-719.
- Kwon, H. J., Kim, K. H., Ham, M. Y., Yeom, S. G., Cho, J. Y., & Choi, M. H. (2006). A study on sexual permissiveness, sexual attitude and sexual identity among middle school bo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1), 99-108.
- Lion, E. M. (1982). *Human sexuality in nursing process*. New York: Wiley.
- Magnan, M. A., & Reynolds, K. E. (2006). Barriers to addressing patient sexuality concerns across five areas of specialization. *Clinical Nurse Specialist*, 20(6), 285-292.
- Miller, K. S., & Whitaker, D. J. (2001). Predictors of mother-adolescent discussion about condoms: Implication for providers who serve youth. *Pediatrics*, 18(2), E28.
- Ng, C. J., & McCarthy, S. A. (2007). Teaching medical students how to take a sexual history and discuss sexual health issues. *Medical Journal of Malaya*, 27, 44-51.
- Reynolds, K. E., & Magnan, M. A. (2005). Nursing attitudes and beliefs toward human sexuality: Collaborative research promoting evidence-based practice. *Clinical Nurse Specialist*, 19(5), 255-259.
- Shell, J. A. (2007). Including sexuality in your nursing practic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42(4), 685-696.
- Shin, K. R., Park, H. J., & Shin, M. K. (2009). Influence of military service experience on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of 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1(1), 77-85.
- Stead, M. L., Brown, J. M., Fallowfield, L., & Selby, P. (2003).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women with ovarian cancer about sexual issues. *British Journal of Cancer*, 88(5), 666-671.
- Travelbee, J. (1969). *Interpersonal aspect of nursing*. Philadelphia: F. A. Davis company.
- West, E., Barron, D. N., & Reeves, R. J. (2005). Overcoming the barriers to patient-centred care: Time, tools and training.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4(4), 435-443.
- Yoon, S. H. (2004). *Study on clinical nurse's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using communication skills by interpersonal caring techniqu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